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 석사학위 논문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기에우 티 이엔데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은기수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기에우 티 이엔레

기에우 티 이엔레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원장 한정훈 (인)

부위원장 박지환 (인)

위원 은기수 (인)

초록

1992년 12월 22일,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정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은 지난 30년 동안 전면적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건수, 특히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인 여성의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타국가의 국제결혼 건수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수는 많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0년 ~ 2005년간 한국 남성과 혼인한 중국인 여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베트남 여자와 결혼 건수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 77건, 2001년 134건, 2002년 474건밖에 안 되었지만 2003년 1,402건, 2004년 2,461건, 2005년 5,822건, 2006년 10,128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후 2007년 ~ 2020년에 2~3천 명 정도 증감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중국과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 혼인한 여자의 수가 9,623명으로 동등하게 나타났고 급기야 2011년과 2015년 ~ 2020년 중국을 추월하였다. 이렇게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을 둘러싼 문제 역시 이 과정 속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2021년에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여자 유학생을 농촌 총각의 결혼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경시의 농촌 총각

결혼대상 선정기준을 통해서 먼저 베트남 유학생의 교육적 수준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며, 더 나아가 인간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없애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 농촌의 혼인 연령을 놓친 남성과 베트남 유학생의 맞선 진행은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을 없애버리는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을 통해 베트남 여성이라는 특정 집단과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인 및 한국 사회의 인식에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매매혼적 성격이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인권이 중요시되는 21세기 현대사회에 어긋난 기준이라고 평가한다. 왜 문경시가 베트남 여자 유학생을 지목하여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필자는 문경시가 추진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이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와 이 문제와 연관된 이전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문제 제기와 선행 연구, 연구 방법과 논문 구성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인구와 국제결혼 현황, 국제결혼 내 이주여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 내 국제결혼 및 이주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요한 배경지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문경시 인구현황과 이 사업의 배경과 목적, 농촌 총각의 결혼 상대자 선정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중심 문제의 범위가 단순히 하나의 지역적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이 사업의 문제점은 문경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라고 판단되었다. 특히 필자는 본 논문의 논점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차별(인종차별과 성차별) 문제이며, 문경시는 인구감소와 농촌 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결혼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결혼 선정 대상을 베트남 여자 유학생으로 노골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렇게 특정 집단을 노골적으로 지목한 것과 그 대상의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성차별적, 인종차별적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저출산 문제가 다문화결혼 정책의 바탕이 되는데 단순히 외국 여성을 통해 한국 여성을 대체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베트남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여성을 ‘출산도구’ 또는 재생산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셋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공인된 매매혼적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 대해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베트남에 대한 배경지식과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인해 베트남 여성은 물론,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권이 한국 사회

전반에서 침해받고 있다고 본다.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분석한 본 논문을 통해 앞으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또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고 한국 사회가 시대와 수준에 알맞은 국제결혼 사업과 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요어: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한국인 농촌 총각, 인종차별과 성차별, 출산도구, 재생산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5
1. 결혼이주여성 관련 선행 연구.....	5
2. 한국 농촌의 국제결혼 관련 선행 연구.....	9
3. 한국에서의 차별, 편견 관련 선행 연구.....	10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14
1. 연구 방법.....	14
2. 논문 구성.....	15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논의.....	17
제 1 절 인종차별(racism)과 성차별(sexism).....	17
제 2 절 사회 재생산 이론(Social Reproduction Theory).....	23
제 3 장 한국 국제결혼 이주.....	26
제 1 절 한국의 인구현황.....	26
제 2 절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30
제 3 절 한국 내 국제결혼 이주여성(marriage immigrants).....	34
1. 한국 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34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37
제 4 절 베트남 결혼이주 특성.....	40

제 4 장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	45
제 1 절 문경시 인구현황.....	45
제 2 절 이 사업 관련 내용.....	50
1. 사업 추진 배경.....	51
2. 사업의 목적.....	55
3. 사업의 선정 대상자.....	56
제 5 장 이 사업의 문제점 분석.....	59
제 1 절 인종차별과 성차별 문제.....	59
제 2 절 여성출산 및 재생산에 대한 도구화 문제.....	65
제 3 절 매매혼적인 성격.....	68
제 4 절 소결.....	71
제 6 장 결론.....	73
참고 문헌.....	77
부록.....	87
Abstract	89

표 목차

<표 1>: 편견 행동의 다섯 표현	20
<표 2>: 연도별 국적·지역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현황	37
<표 3>: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연도별 견혼 현황.....	40
<표 4>: 2010 년, 2020 년 문경시의 연령별 성별 혼인 상태(15 세이상).....	47

그림 목차

<그림 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27
<그림 2>: 2000 년 ~ 2021 년 고령인구비율.....	28
<그림 3>: 2016 년 ~ 2021 년 출생과 혼인 현황.....	29
<그림 4>: 2011 년 ~ 2021 년 외국인과의 혼인.....	31
<그림 5>: 2005 년 ~ 2020 년 국적 지역별 결혼이민자 수.....	33
<그림 6>: 2011 년 ~ 2021 년 성별 외국인과의 혼인 통계.....	35
<그림 7>: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연도별 견혼 현황.....	42
<그림 8>: 문경시 총인구, 성별인구 현황(주민등록인구).....	46
<그림 9>: 문경시 당초(안).....	53
<그림 10>: 협조문 (수정(안)).....	54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1992년 12월 22일,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정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2022년에 양국은 국교 수립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등 다방면으로 협력해 왔다. 예를 들어, 정치 분야에서 양국이 수많은 상호 양자방문을 하였다. 이러한 빈번한 국빈 방문은 양국의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은 작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대표적인 성과를 예로 들자면 2015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이 있다. 이는 양국이 서로에게 핵심적인 협력 관계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의 협력과 교류 관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양국 간의 안타까운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는데, 그 중 문화적인 부분,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족한 이해도,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한국·베트남 국제결혼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러한 문제는 양국의 우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은 눈에 띄게 늘고 있음으로써 더 더욱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남자와 혼인한 베트남 여자의 국적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2016년 5,377명, 2017년 5,364명, 2018년 6,338명, 2019년 6,712명, 2020년 3,136명이 있었다¹. 이렇게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을 둘러싼 문제 역시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경상북도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가 있다. 문경시는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여자 유학생을 농촌 총각의 결혼 상대자로 선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경시의 다문화 정책은 먼저 베트남 유학생의 교육적 수준과 베트남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 또 이 사업 내용 중 베트남 여성이라는 특정 집단을 농촌 총각의 결혼 상대자로 선정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해 편향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왜 문경시는 베트남 여성이라는 특정 단어를 선정하여 정책을 진행하였는가? 그리고 왜 문경시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가? 위와 같은 의문을 시작으로 필자는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분석함으로써

¹ 통계청. 국제결혼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검색일: 2021.9.15).

궁극적으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우선 국제결혼과 관련된 기존 연구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국제결혼 현황,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국제결혼에 관한 법규 등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반해 기존 국제결혼 관련 연구 사례 수와 비교해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가 문경시에서 추진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또는 베트남 여성 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또 단순히 이 문제가 문경시 하나의 시만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 사회 및 그 속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문제임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 대해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인 또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부족한 이해도를 연구의 핵심으로 삼고, 그 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에 관한 왜곡된 시선에 관한 내용으로 그 이해 범위를 한정한다.

필자는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람 및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베트남이라는 국가와 그 베트남 사람에 대한 편견적 의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후일

한국 정부 및 공무원의 국제결혼과 관련된 사업 또한 정책수립 진행과정에서 보다 인도주의적,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정식적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결혼과 연관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래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분석한 본 논문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에 관한 매듭을 풀고 한국 사회가 시대와 수준에 알맞은 국제결혼 사업과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과 관련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위에 언급한 이론적, 실제적 요구와 주제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 -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를 논문 연구 주제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본 논문에서는 결혼이주여성, 한국 농촌의 국제결혼,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 편견에 연관한 기존 선행 연구를 주로 검토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 정보의 다양성과 기반이 있는 논리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선행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관련 선행 연구와 한국 농촌의 국제결혼 관련 선행 연구, 한국에서의 차별, 편견 관련 선행 연구로 총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1. 결혼이주여성 관련 선행 연구

한국에서 1990년 후반 이후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제결혼 또는 다문화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사례가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로는 김민정(2011)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의 저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231명을 대상으로 문화적 스트레스,

가정폭력, 사회적 지지, 우울, 심리적 안녕감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도출하였다. 같은 해에 박재규(2011)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해체 원인 및 특성 분석: 경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이 해체되는 원인에 대해 서술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이 이혼을 선택하는 중요한 원인은 남편의 학대와 폭력, 음주와 도박이 있으며, 배우자의 정신장애, 언어소통, 대화기술 부재, 열악한 경제, 음주 등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해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박재규(2007)는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 의사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와 소개받은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 정보, 열악한 경제, 남편과의 소통에 있어 정보 격차와 부당행위 경험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연구 사례를 살펴볼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따른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을 둘러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조미현·Hoang Thi Viet Ha(2017)²의

² 조미현 · Hoang Thi Viet Ha. 2017.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혼인경로에 따른 혼

연구는 베트남 이주여성의 결혼 동기와 가족과 관계에 주목하였다. 위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저자들이 결혼 방법 또는 경로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한 이유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이 친지의 소개를 받거나 서로 알아보는 시간에 걸쳐 결혼하기로 한 여성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는 김미진(2017)의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이미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민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인지적인 요인, 정서적인 요인, 행동적인 요인 총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또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삶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 이미지를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반면, 한국 사회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적 인식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교육과 고부관계, 남편과의 관계, 남편의 경제력 등은 한국 사회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적인 맥락으로 임도경(2010)³도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동기와 가족과의 관계분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0권 1호. pp. 143~66.

³ 임도경. 2010. 「외국인 이주민이 본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연구」, 『주관성 연구』

한국 사회 이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는데 위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에게 형성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기인하는 측면보다는 그들이 직접 대면하고 사는 한국인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임도경, 2010: 101)는 것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한국 또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 우월적 위치에 있는 백인들 중심의 ‘친 한국형’이며 둘째, 동남아시아계 유색인종 중심의 ‘반 한국형’, 즉 백인들보다 못한 동남아시아 사람이고 셋째, ‘한국 우호형’이다. 여기서 외국인들의 한국 또한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원인은 바로 한국인들의 인종적 차별 또는 편견 때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송유진(2008)은 “베트남 국제결혼 여성의 혼인이주 원인 및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주제로 혼인이주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논문의 저자는 다른 기존 선행 연구와 달리 혼인 신고를 완료하고 출국을 기다리는 여성들과 결혼이주여성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제결혼 여성의 혼인이주 원인에 대해 “개인적인 열망”, “타인을 위하여”, “상황적인 요인 및 운명/인연” 총 세 가지로 그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국가 간 국제결혼 비교에 대한 연구로는 은기수 외(2006)의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 한국과 대만의 비교”라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 남성과 대만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다른 나라의 여성들보다 더 많이

결혼하는 이유를 검토하였는데, 저자들은 문화적 친밀성,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선호, 외모의 유사성, 베트남 여성들의 강한 생활력, 처녀성의 강조 그리고 결혼 산업의 발달을 중점으로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 선호 이유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였다.

2. 한국 농촌의 국제결혼 관련 선행 연구

한국 농촌의 국제결혼 건수와 농촌에서의 국제결혼과 연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문제와 연관한 연구 사례가 많지 않음에 대해 우선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임형백(2007)은 “한국 농촌의 국제결혼에 대한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농촌의 국제결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여기서 한국 농촌 총각들이 경제적 격차로 인해 외면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부분 한국인의 인식 상 현재 대한민국이 여전히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인과 외모가 다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에 관한 연구로 이지훈(2005)의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우려”라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으로 피해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제결혼 중매 사업은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공인된 매매혼적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하였으며 농촌 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여성들이 희생된다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정현숙·양순미(2009)의 “농촌의 혼인 관련 인구학적 현황과 농촌 미혼남성의 혼인과 국제결혼 관련 태도분석”이라는 연구가 있다. 저자가 농촌 미혼남성에 대한 지원체계와 정책제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의 혼인 관련 인구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촌 미혼남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이 포함된 혼인과 관련된 인식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김한곤·박세정(2013)은 “경북지역 농촌 총각의 미혼실태와 해결방안”이라는 연구에서 한국 전국과 경북지역의 연령별 미혼남녀에 대한 인구비율과 경북지역 농촌 총각의 사회적, 경제적 특징(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을 살펴보면서 경북지역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원인을 도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방안 역시 제시하였다.

3. 한국에서의 차별, 편견 관련 선행 연구

한편 한국에서의 편견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선행 연구 사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배상식(2019)은 “한국사회에서의 인종편견 사례와 그 특성”이라는

주제로 연구하였다. 위 논문에서 저자는 한국사회에서의 인종 편견 사례를 통하여 이의 발생원인과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저자는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 편견 사례를 대상으로 생물학적·유전학적 요인, 사회학적·역사적 요인, 종교적·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 편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희정·조영아(2017)의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는 한국으로 시집오는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을 고찰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 의미와 본질 분석을 통해 이들의 차별경험에 대해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 저자는 심층면담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가난한 이방인’, ‘무시하는 가족’, ‘견디며 맞섬’ 그리고 ‘정착 의지가 달라짐’ 총 네 가지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종일(2012)은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인종 편견 특성”이라는 연구에서 한국 인종편견의 특성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종, 소득, 문화라는 세 가지 기준을 선정하여 열 한 가지 인종 편견 양상으로 세부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중에는 첫째, 인종편견 준거는 흑인 편견, 유사·흑인, 혼혈인, 백인; 둘째, 소득편견에 대해서 소득 낮은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소득 낮은 백인에 대한 차별, 소득 낮은 동족에 대한 차별(러시아, 중국, 조선족), 소득 높은 나라에 대한 호의적 태도; 셋째, 문화 편견은 종교(이슬람교), 풍속·생활습관 그리고 외국인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차별로 구분하였다. 저자가 이 열한

가지 인종편견 양상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인의 인종편견이 다면성·이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종일(2011)도 역사·사회적 맥락을 통해 한국 인종편견 형성과정과 요인을 살펴보는 목적으로 “한국 인종편견 형성과정과 요인”이라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저자는 한국의 인종편견이 형성된 요인을 조선중심 중화사상과 오리엔탈리즘, 탈아입구론, 민족개조론, 근대화 후 의사 오리엔탈리즘으로 총 다섯 가지로서 그 요인을 분류하였다. 또 이종일은 “한국 인종편견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되었으며 한국 인종편견 속에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 관련되어 나타남으로써 구미나 일본의 인종편견과 비교해 볼 때 복잡성·이중성·상호모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 이정복(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적 언어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비판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적 언어문화의 실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저자가 차별 대상과 언어 형식에 따라 인종차별 표현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특히, 공식성과 객관성이 강한 언론의 자료와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인터넷 댓글 자료를 분석하여 인종차별적 문제 해결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⁴ 이종일. 2011. 「한국 인종편견 형성과정과 요인」. 『사회과교육연구』 18권 2호. pp. 88.

이상 선행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국제결혼과 관련된 연구와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베트남 이주여성 관련 연구와 한국 사회 내 인종차별이나 편견에 연관한 연구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한국 농촌의 국제결혼과 연관한 연구 사례는 비교적 많지 않다. 특히,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분석할 것이다. 이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베트남 우호 관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베트남이라는 나라 또한 베트남 사람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문헌이 되고자 한다. 그러므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1. 연구 방법

필자는 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질적 연구 방법론의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논의한다. 문경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의 협조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대한 자료 등 참고하여 이 사업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이전에 연구된 질적 연구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보듯이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국제결혼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앞서 제시된 기존 자료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바인 ‘왜 문경시는 베트남 여성이라는 특정 단어를 선정하여 정책을 진행하였는가?’ 그리고 ‘왜 문경시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의 답을 궁극적으로 찾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즉,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이다. 서론에서는 필자의 본 논문의 목적과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이어서 연구 방법 및 기존 선행 연구 등을 서술한다. 본 장에서의 내용은 본 논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배경지식이 되어줄 것이다.

제2장에서는 성차별(racism)과 인종차별(sexism)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차별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 차별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 재생산 이론(Social Reproduction Theory)도 알아볼 것이다. 이로써 인종차별과 성차별, 여성의 재생산 도구화에 관한 내용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3장은 한국 국제결혼 이주에 연관한 내용이다. 이 장에서 주로 한국의 인구현황,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그리고 베트남 결혼이주 특성으로 분류하고 한국 국제결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 국제결혼과 결혼 이주여성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배경지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먼저 이 사업의 배경과 목적, 농촌 총각의 결혼 상대자 선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람 또는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중심 문제의 범위가 단순히 하나의 지역적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단순히 문경시 하나의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한다. 특히, 필자는 본 논문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째, 인종차별과 성차별 문제이며, 둘째, 여성 출산 및 재생산에 대한 도구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이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매매혼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은 제5장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요약하고 본 논문의 한계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또 본 논문이 가지는 의의점을 제시하며 마무리를 맺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논의

제1절 인종차별(racism)과 성차별(sexism)

본 논문의 분석 내용은 인종차별(racism)과 성차별(sexism)이라는 두 가지 개념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은 학자마다 정의가 조금 다르다.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⁵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은 “타자로서의 타자에 대한 증오”라고 의미한다. 알베르 멤미(Albert Memmi)는 인종차별에 대해 혐의와 광의로 나뉘서 정의하였다. 그는 혐의의 인종차별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혐의의 인종차별주의자는 “타자의 생물학적 차이에
준거하여 이를 이용해 타자를 괴롭힘으로써 이익을 얻
으려는 사람이다. 타자가 속한 인종은 불순하고 증오해
야 할 것으로, 자신이 속한 인종은 순수하고 칭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모리요이치, 배영미 옮김, 2015, p. 18).

⁵ Christian Delacampagne(1949_2007)는 세네갈에서 태어났다. <인종차별의 역사>라는 책을 지었으며 하정희는 한국어로 옮겼다.

이 정의를 설명해 보면 인종차별은 인종을 기준으로 타자의 인종을 무시하고 자신의 인종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트티앙 들라캥과뉴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인종차별은 인종을 근거로, 어떤 태생적인 특징으로 인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백인의 차별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알베르 멤미(Albert Memmi)는 인종차별을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하였다. 그는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서 다른 차이 요소를 통해서도 타자를 차별한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라 광의의 인종차별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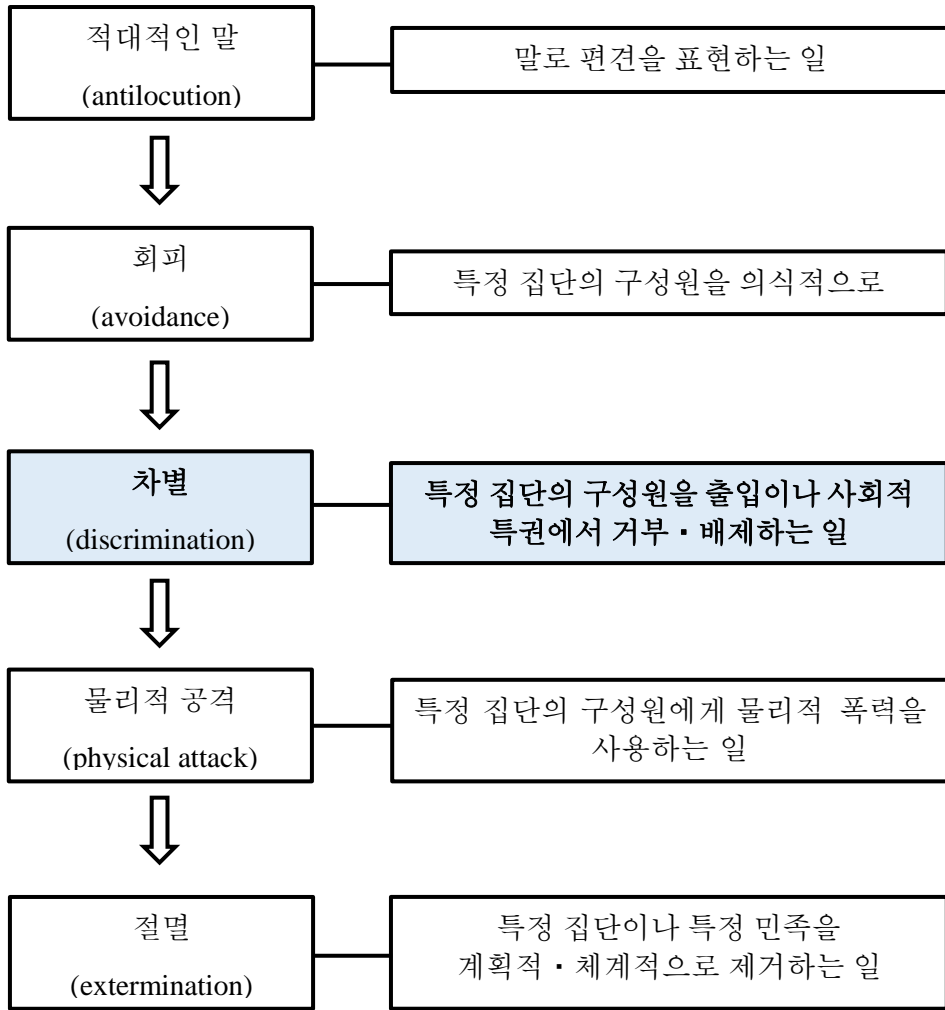
광의의 인종차별주의자는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또 다른 차이를 이유로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역시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타자의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같은 행동, 즉 언어에 의한 공격 혹은 실제 공격을 하게 된다.”(고모리요이 치, 배영미 옮김, 2015, p: 18).

한편 생물학적 측면과 아울러 공공생활의 측면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도 있는데 1969년 <인종차별 철폐 국제 조약>에서 인종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공공생활 영역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인정, 향유, 실현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 국가, 출신 민족에 근거한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대”

로 정의된다(이준일, 2007, p. 80). 이 조약의 해석에 따르면 인종차별은 인종만 아니라 피부색, 출신 국가 등에 대한 차별도 엄밀히 인종차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생물학적 개념의 출신 국가, 출신 민족,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를 들자면, 한국인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과 같은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차별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저소득국가에서 온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한국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결혼”(이준일, 2007), 혼혈아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우선적으로 받을 대상에 대한 차별의 강도와 빈번함은 다른 외국인 대상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제시된 인종차별의 정의와 함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은 인종적 편견 때문에 특정한 인종에게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개념을 분석해보면, 즉 인종차별은 인종편견(racial prejudice)과 연관성이 있기에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올포트(Allport, 1954/2020)가 언급한 편견(prejudice) 행동의 다섯 단계 또는 표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차별이다. 이 다섯 가지 단계는 아래의 <표1>로 설명된다.

<표 1>: 편견 행동의 다섯 표현



자료: 고든 올포트, 1954/2020, p. 54 – 55; 추병완, 2012, pp. 130 – 131.

<표1>에서 보듯이 세 번째 단계는 차별(discrimination)이라는 표현이다. 이를 통해서 차별은 편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편견의 심화된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차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차별 (sexism)이란 “성별로 인한 차별.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차별을 이른다”고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한편 호주의 성차별금지법 (SDA)에서는 성차별은 “성별, 결혼,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과 성희롱 (sexual harassment) 및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의미한다”(이준일, 2007: 87). 이 해석에 따라 성차별이란 성별, 결혼, 임신뿐만 아니라 성희롱(sexual harassment)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차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성차별을 혼인 여부, 임신이나 출산, 가족형태나 가족상황에 근거한 차별이나 성희롱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이준일, 2007: 87). 한편, 신옥주(2012)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이유로 하거나 남성과 여성이 사회문화적으로 역할, 기질, 성성(sexuality)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양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주로 여성에 대하여 일어난다”라고 성차별을 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인종차별은 생물학적 측면과 공공생활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연구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출신 민족, 국적 등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법적 차별을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정의하고 성차별은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별로서 차별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성차별의 범위에는 결혼, 임신, 성희롱(sexual harassment)과 가족에 대한 책임 등에 관

련된 인권적 침해 역시 이 개념에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사회 재생산 이론(Social Reproduction Theory)

본래 재생산 개념을 둘러싼 정의에 대한 주장의 수가 많으며, 이것은 학자와 그 학자가 종사하는 영역에 따라 재생산에 대한 정의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만큼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재생산 이론인 ‘사회 재생산 이론(Social Reproduction Theory)’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재생산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 장의된 사회적 재생산이란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 특정한 사회에서 사회관계의 유형과 기존의 생산 양식이 지속하는 것” 또한, 사회 재생산은 “식량, 의복, 주거가 어떻게 바로 소비될 수가 있게 되는지”,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또한 “아이의 양육과 사회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뿐만 아니라 “노인·병자 돌봄이 어떻게 제공되는지”도 포함한다(실라 맥그리거, 2019 재인용).

또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차별과 관련된 사회 재생산을 많이 언급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리즈 보겔(Lise Vogel)은 사회 재생산 이론에서 계급사회에서의 노동력 재생산과 계급사회에서의 여성차별에 대해 설명하였다. 리즈 보겔은 계급사회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었다. 첫째 “직접 생산자들이 에너지를 충전해 다시금 일터로 갈 수 있게 하는 각종 일상 활동들”, 둘째 “‘중속계급’에서 노동하지 않는 구성원들(너무 어리거나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다른 이유로 노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을 유지하는 활동, 셋째 “종속계급 중 사망했거나 더는 일할 수 없게 된 구
성원들을 대체하는 과정”이 있다(정진희, 2016: 2). 여성들이 가정에서 아이, 노
인, 환자와 같은 돌봄 노동(care works), 청소, 빨래 등을 비롯한 가사노동
(domestic labour)이라는 무보수 재생산노동을 주로 한다고 해서 이 세 가지 과
정 중에서 여성들을 두 번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다. 특히 가사노동
(domestic labour)은 임금노동과 달리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지만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이 아니기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금노동과 동일시
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미첼(Mitchell)은 “여성이 생산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지 못했던 까
닭은 출산, 양육, 돌봄 등의 재생산영역에서 남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정강산, 2019, p. 200). 그리고 여성운동 진영에서 사회 재생산이 용
례화되었으며 여기서 사회 재생산은 첫째 “청소와 빨래, 밥 짓기 등을 비롯한
가사활동 전반”, 둘째 “노인과 병자, 아이를 기르고 보살피는 돌봄과 양육”, 셋
째 “자녀의 출산 등을 아우르는 것”을 포함한다(정강산, 2019, pp. 225~226). 따
라서 가사노동자는 임금노동자보다 착취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여성이 자녀의 출산, 돌봄 노동(care works), 가사노동
(domestic labour)이라는 세 가지 재생산 활동을 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여
성이 결혼, 특히 농촌에서 거주하는 남성과 결혼 또는 출산 등을 기피하는 경향
이 있으며, 이로써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 문제와 농촌 총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 여

성이라는 과거 사회적으로 노동하지 않는 구성원을 보충하기 위해 이를 외국인 여성들로 대체함으로써 농촌의 국제결혼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인권적으로 미숙한 국제결혼지원 사업은 한국인들의 외국인 여성은 물론 한국 농촌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 이론 배경 설명을 통해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 사례와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 분석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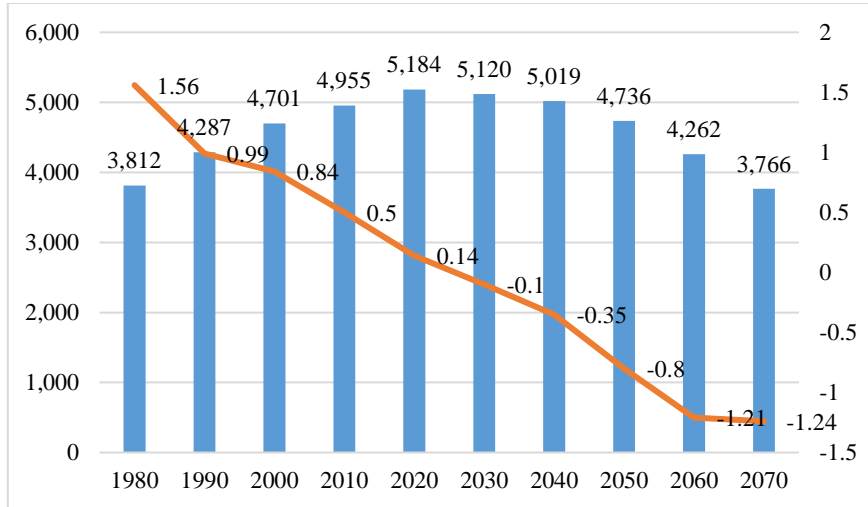
제3장 한국 국제결혼 이주

제1절 한국의 인구현황

한국 국제결혼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의 인구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총인구와 인구성장률은 다음 <그림 1>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3,812만 명을 2020년 5,184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까지 3,766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성장률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1980년 1.56%, 1990년 0.99%, 2000년 0.84%, 2010년 0.5%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 0.14%를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에 인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그림 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단위: 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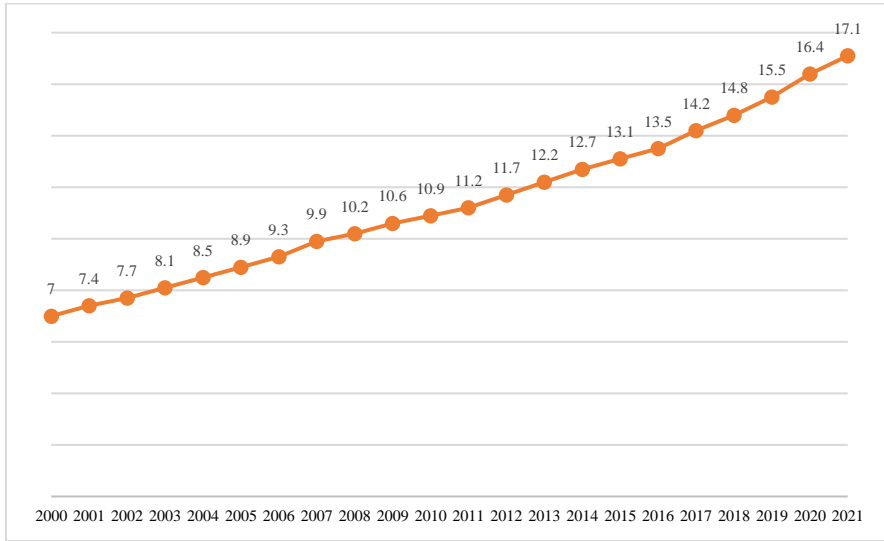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https://kosis.kr>(검색일: 2022.06.13), 필자 작성

이어서 <그림 2>는 한국의 고령인구비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2000년부터 2021까지 지난 21년 동안 고령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증가는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체 인구의 2019년에 15.5%, 2020년에 16.4%, 2021년에 17.1%를 차지하였다.

<그림 2>: 2000 년 ~ 2021 년 고령인구비율

(단위: %)



*고령인구비율=(65세이상인구÷전체인구x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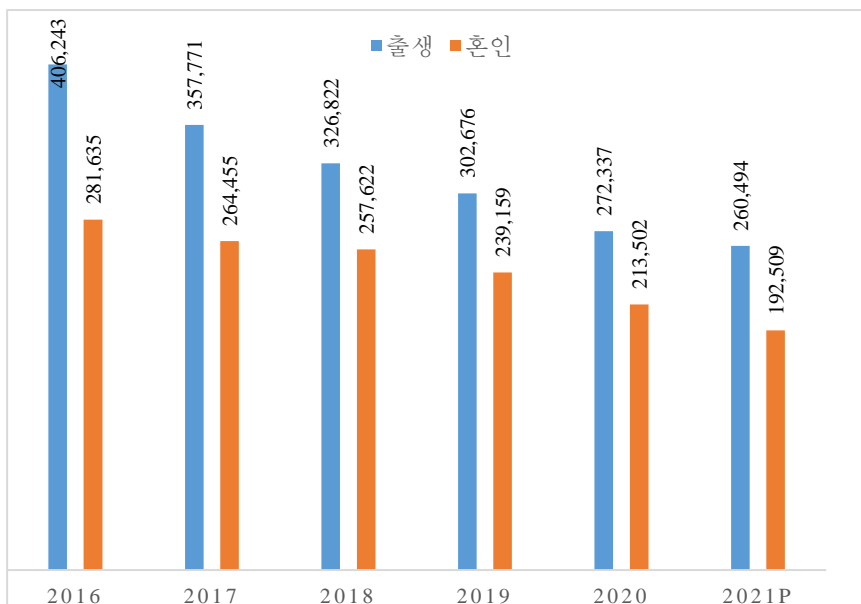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https://kosis.kr>(검색일: 2022.06.13)

또한, <그림 3> 현황에서 보이는 것처럼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출생아의 경우에는 2016년 406,243명, 2017년 357,771명, 2018년 326,822명, 2019년 302,676명이 태어났다. 2021년 출생아 수는 272,337명이던 전년보다 11,843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 건수도 출생아 수와 마찬가지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20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2021년에 20만 건 밑(192,509건)으로 감소하였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로, 여성이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추세로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농촌의 사회·경제·문화적 낙후, 이성 교제의 어려움, 농촌 총각에 대한 미혼여성의 결혼 기피 등으로 인하여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미혼남성이 결혼하기 더욱 더 어려워진다(김한곤·박세정, 2013: 736). 또한, 여성의 농촌 이탈 문제와 기타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또한 한국 남성, 특히 농촌 출신 남성이 결혼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3>: 2016년 ~ 2021년 출생과 혼인 현황

(단위: 명/건)



자료: 통계청. 2021년 12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p. 17.

제2절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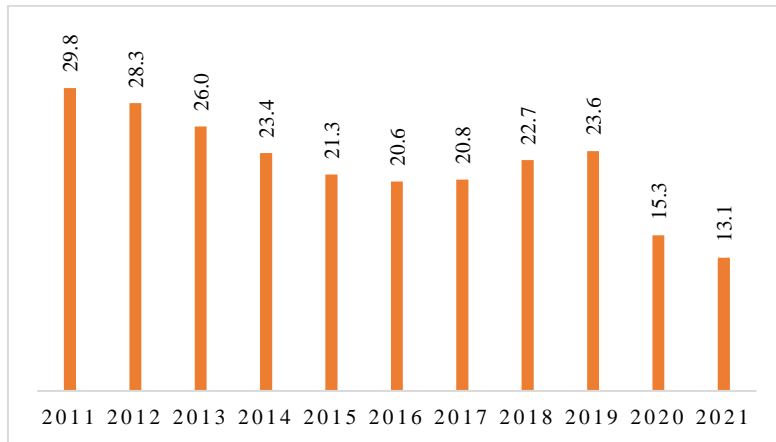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제결혼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이전에 한국에서 흔하지 않았다. 처음에 국제결혼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게 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국제결혼은 주로 주한 미군과 한국인 여성의 혼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90대부터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감소에 처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결혼 건수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결혼 적령기가 지난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라는 ‘행정주도형’ 국제결혼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다(김한곤·박세정, 2013: 725). 이로써 한국의 농촌에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먼저, 최근 10년 동안 국제결혼 현황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2011년 ~ 2021년에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증감 추세를 보인다.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2만 건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2020년에 15천 3백 건으로 급락하였으며 2021년에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3천 1백 건으로 2020년보다 약 2천 건(14.6%)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국제결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2011 년 ~ 2021 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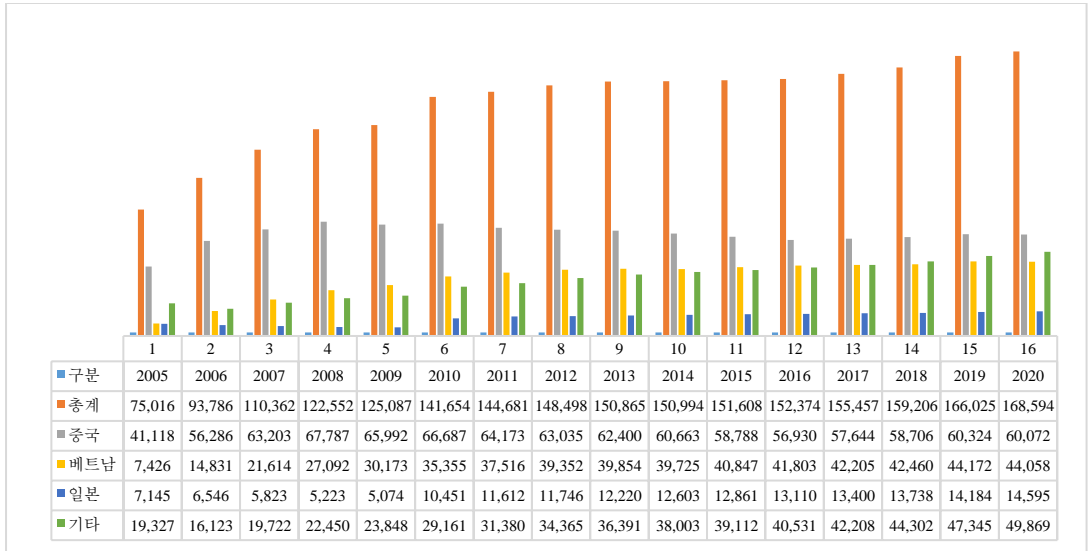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년 혼인이혼 통계

다음으로 국적·지역별 한국의 국제결혼이민자 현황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림 5>는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규모를 보여준다. <그림 5>에 의하면 2005 년에서 2020 년까지 결혼이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 중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베트남, 일본 순으로 이민자 수가 많은 것이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2005 년 ~ 2020 년에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수는 4 만 ~ 6 만 명으로 증감 추세인데 전반적인 결혼 건수는 다른 나라와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5 년 41,118 명에서 2006 년 56,286 명으로 급증하였다. 그 이후 2014 년까지 6 만 명 이상 넘었으며 2015 년에서

2018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9년과 2020년에 다시 6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국적 결혼이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이며, 2005년에 7,426명에서 2007년에 2만 명이었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만 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자 수는 4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6년 41,803명, 2017년 42,205명, 2018년 42,460명, 2019년 44,172명이었다. 2020년 44,058명으로 전년보다 조금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사회 활동 감소 때문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 2005년 ~ 2009년에 5,000 ~ 7,000명 정도로 증감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만 명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구체적으로 2010년에 1만 명 이상, 2011년과 2012년에 1만 1천 명 이상, 2013년과 2014년, 2015년에 1만 2천 명 이상, 2016년과 2017년, 2018년에 1만 3천 명 이상, 2019년과 2020년에 1만 4천 명이 넘어섰다.

<그림 5>: 2005 년 ~ 2020 년 국적 지역별 결혼이민자 수

(단위: 명)



자료: 통계청. <https://kosis.kr>, 필자 작성(검색일: 2022.06.29).

제3절 한국 내 국제결혼 이주여성(marriage immigrants)

본 장에서는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marriage immigrants) 현황과 한국인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태도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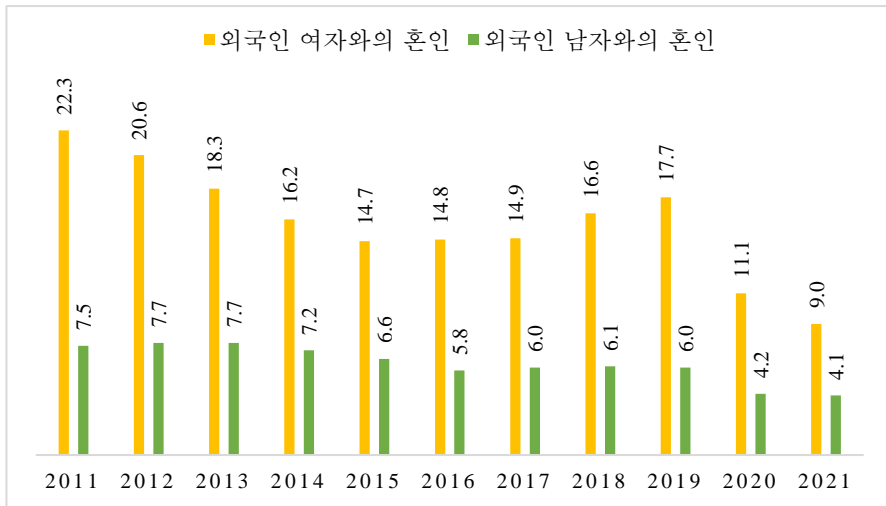
1. 한국 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1990 년 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러 온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성별 한국인과 외국인 간 혼인 건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6>에서 살펴보듯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2011 년에서 2021 년까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은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혼인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세부적으로 2011 년 22 천 3 백 건, 2012 년 20 천 6 백 건, 2013 년 18 천 3 백 건, 2014 년 16 천 2 백 건, 2015 년 14 천 7 백 건, 2016 년 14 천 8 백 건, 2017 년 14 천 9 백 건, 2018 년 16 천 6 백 건, 2019 년 17 천 7 백 건, 2020 년 11 천 1 백 건 그리고 2021 년 9 천 건이었다. 이렇게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건수는 일정 증감세를 보임에도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성의 혼인 건수보다 지속적으로 두세 배정도 추월하였다.

<그림 6>: 2011년 ~ 2021년 성별 외국인과의 혼인 통계

(단위: 천 건)



자료: 통계청. 2021년 혼인이혼 통계, 필자 작성

다음으로, 연도별 국적·지역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초에는 중국인과 필리핀 국적 결혼이민자가 많았으며, 그 이후 베트남, 캄보디아 등 국적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그 수도 급증하고 있다(조현미 Hoang Thi Viet Ha, 2017, p 143). <표 2>의 현황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중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은이 가장 많았으며, 2000년 ~ 2010년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후에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2000년 51.3%(3,566 건), 2005년 67.0%(20,582 건), 2010년 36.6%(9,623 건)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반면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은 2000년에

1.1%(77 건)밖에 안 되었지만, 그 후에 2005 년에 19.0%(5,822 건), 2010 년 36.6%(9,623 건)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2015 년 ~ 2020 년 동안에는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 년 31.7%(4,651 건), 2020 년 28.3%(3,136 건)이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2000 년에서 2020 년까지 한국인 남성과의 혼인 비율은 증감 추세를 보이고, 구체적으로는 2000 년 16.9%(1,174 건)에서 2005 년 3.2%(980 건)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후에 2010 년에 7.3%(1,906 건)로 증가하였다가 2015 년 6.9%(1,006 건)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2020 년까지 3.3%(367 건)밖에 안 되었다. 또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혼인 비율 역시 증감 추세를 보이면서 2000 년에 중국과 필리핀 11.8%(819 건)의 그 뒤를 이었다. 이후에 2005 년에 2.9%(883 건)가 감소하였으며 2010 년 4.5%(1,193 건), 2015 년 7.0%(1,030 건), 2020 년 6.8%(758 건)로 나타났다. 또, 태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은 2000 년에 3.5%로 나타났으며 2005 년에 0.9%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0 년에서 2020 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0 년 1.7%, 2015 년 3.7%, 2020 년 15.6%에 이르렀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2005 년에 0.5%만 차지하였지만 2010 년에 4.6%로 증가하였다. 이후에 2015 년 3.6%, 2020 년 2.5%로 나타났다. 그 외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나머지 국가들은 소수를 차지하였다.

<표 2>: 연도별 국적·지역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현황
(단위: %)

출신구/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계	100%	100%	100%	100%	100%
필리핀	16.9%	3.2%	7.3%	6.9%	3.3%
베트남	1.1%	19.0%	36.6%	31.7%	28.3%
캄보디아	0.0%	0.5%	4.6%	3.6%	2.5%
라오스	0.1%	0.0%	0.2%	0.6%	0.6%
말레이시아	0.2%	0.0%	0.0%	0.1%	0.3%
인도네시아	0.6%	0.3%	0.3%	0.7%	0.5%
태국(타이)	3.5%	0.9%	1.7%	3.7%	15.6%
몽골	0.9%	1.8%	1.2%	1.0%	1.4%
중국	51.3%	67.0%	36.6%	31.0%	22.7%
일본	11.8%	2.9%	4.5%	7.0%	6.8%
기타 및 미상	13.6%	4.4%	6.9%	13.8%	18.0%

자료: 통계청. <https://kosis.kr>, 필자 재정리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결혼이주여성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고찰함으로써 본 논문의 문제의 발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 태도의 결정적인 척도는 바로 출신국의 경제력이라고 발견하였다(유승무·이태정, 2006). 즉, 국민소득 수준을 근거로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이주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다르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이 “선진국 중심주의적 태도”(김현숙·김옥녀, 2017)와 후진국 출신 외국인 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우월적인 태도를 보이고 후진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보다는 선진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태도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탈피하고자 국제결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한국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못사는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으로부터 무시와 소외를 당할 수 있다(김희정·조영아, 2017).

또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역시 한국 사회에서의 단일민족 문화와 민족주의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이정복(2009)에 따르면 한국은 단일민족에 대한 이념을 유지해 왔기에 한국인의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가 강하다고 분석하였다. 역사적 맥락에서 김현숙·김옥녀(2017)는 “한국의 민족주의는 단일민족 신화를 바탕으로 단일혈통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편협하고 배타적인 태도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문화적인 단일문화, 순수혈통주의 등과 같은 요인으로 한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다(문경희, 2006). 따라서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거나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방인이라고 바라보며 한국 사회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덧붙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한국인들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태도와 인식 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하여 국제결혼을 할 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배우자 소개를 받는다는 것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 또는 “돈에 팔려온 신부”(남순현, 2012)로 여겨지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 광고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야기하는 중이다.

결론적으로,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하여 한국인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 형성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개발도상국 국적 시민에 대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둘째,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부정확한 정보와 중개대가에만 상업적으로 치우진 업체들의 운영방식이며,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 문화와 이에 따른 민족주의적 성격이 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제4절 베트남 결혼이주 특성

베트남에서는 결혼이주는 주로 여성들에게 이루어졌으며,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 시대부터 베트남 여성과 프랑스인과 미국인의 국제결혼이 있었다. 1992년부터 대만인 남성과의 결혼은 많지 않았지만, 1995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1994년 530명에서 2000년에는 13,863명, 2001년 12,417명, 2002년 13,743명, 2003년 11,358명, 2004년 12,212명으로 급증하였으나 2005년부터 대만인 남성과의 결혼은 급락하였다(<표 4>).

<표 3>: 베트남 여성의 대만 남성과의 연도별 견혼 현황

(단위: 명)

국가/연도	1994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10
대만 남성	530	13,863	12,417	13,743	11,358	12,240	3,212	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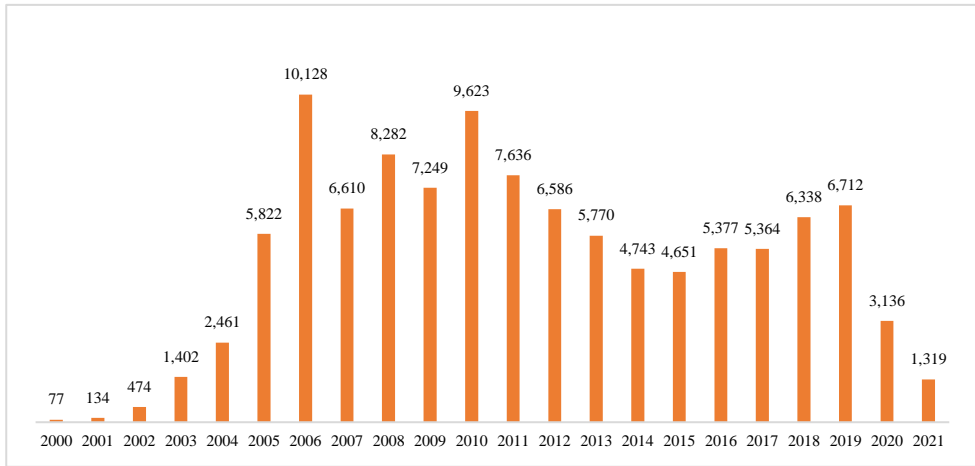
자료: Le Nguyen Doan Khoi, 2012; 조현미 ·Hoang Thi Viet Ha, 2017;

필자 재구성

다음으로, 본 논문의 주제가 한국과 베트남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인 만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현황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대 중순부터 대만 남성과의 결혼에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추세가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은 이미 본 장 제 3 절에서 이미 밝혔다. 본 절에서도 다시 한번 최근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 건수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7>에서 보듯이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은 77명이던 2000년에서 2003년에 1,4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 10,128명으로 급증하였다. 2007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폭발되기 전(2019년)까지 4천~1만명 미만의 증감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3,136명에서 2019년 대비 3,20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 1,319명에 불과하지 않았지만 타 국가 대비 전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림 7>: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연도별 결혼 현황

(단위: 명)



자료: 통계청. <https://kosis.kr>, 필자 작성

더불어,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 수준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 살고, 농부가족으로 생활한다(Tran Thi Nhung, 2010; Le Nguyen Doan Khoi, 2012). 또한 이들은 대부분 본국에서 경제력이 약하고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을 간다. 반면에 그들의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연령 차이가 크고 대부분 농촌출신이며 농림어업, 택시 기사, 자동차 수리 등과 같은 일을 하며 한국에서의 경제적 수준도 좋은 편이 아니다(Le Thi Quy, 2010; 육수현·허정원, 2020). 배우자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했는가? 이는 베트남 여성의 이주경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육수현·허정원(2020)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경우가 5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동료 소개가 22.85%, 가족·친척 소개 18.3%, 스스로가 6.45%, 종교기관 0.2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절반 이상의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한국 남자와 혼인한 베트남 여성들이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Nguyen Doan Khoi(2012)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남성이나 대만 남성과 결혼한 원인 중 경제적 요인(가족부양)이 82.5%로 가장 많았으며, 행복은 12.5%로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동향 및 현지 조건은 2.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본 절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베트남에서 결혼 이주는 대부분 베트남 여성과 한국, 대만 등 외국인 남성의 혼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기서 한국 남성과 혼인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의 결혼을 비롯해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것은 양국 국민들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다수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현상은 베트남 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이미지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그 갈등은 심화되어 베트남인, 특히 베트남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보며, 결과적으로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베트남 여자 유학생을 농촌 총각의 결혼 상대자로 선정한 것과 같은 인권적으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다음 장에서는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발단과 시책의 세부사항 대해 사회학적 접근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논문의 핵심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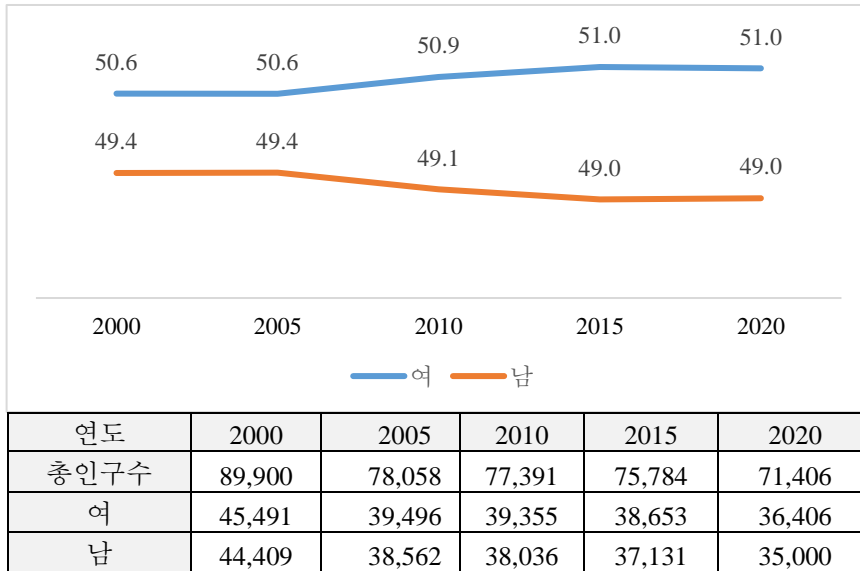
제4장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

제1절 문경시 인구현황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농촌 지역의 대부분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문경시 역시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림 8> 현황에 따르면 2000년 ~ 2020년까지 문경시 총인구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 89,900명에서 2010년에 77,39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 71,406명으로 나타난다. 또한 문경시의 성별 인구 현황은 <그림 8>에서 보이듯이 2000년 ~ 2020년에 문경시의 남성 수는 여성 수와 비교했을 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인구의 경우, 2000년에서 202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인구 수의 경우 역시 남성 인구와 같은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에는 남성 수는 49.4%(44,409명), 여성 수는 50.6%(45,491명)를 차지하였다. 이후 2005년, 2010년, 2015년에는 여성 수는 남성 수보다 1.2% ~ 2% 정도 소폭으로 많았으며 2020년에는 남성 수 49%(35,000명), 여성 수는 51%(36,406명)로 나타났다.

<그림 8>: 문경시 총인구, 성별인구 현황(주민등록인구)

(단위: %/명)



자료: 통계청. <https://kosis.kr>(검색일: 2022.06.29), 필자 작성

다음 문경시의 연령별 성별 혼인 상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10 년, 2020 년 기준으로 문경시의 연령별 성별 인구현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표 4>: 2010 년, 2020 년 문경시의 연령별 성별 혼인 상태(15 세이상)

(단위: %)

2010										
성별	남					여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자	사별	이혼	-계	미혼	유배우자	사별	이혼	-계
15~19 세	99.9%	0.1%	-	-	100%	99.4%	0.6%	0.1%	-	100%
20~24 세	98.1%	1.7%	-	0.2%	100%	91.9%	8.0%	-	0.1%	100%
25~29 세	83.6%	16.0%	-	0.4%	100%	58.0%	40.9%	-	1.0%	100%
30~34 세	53.8%	44.7%	-	1.4%	100%	22.3%	75.0%	0.6%	2.1%	100%
35~39 세	28.0%	67.4%	0.4%	4.2%	100%	10.3%	84.8%	0.7%	4.2%	100%
40 세+	4.4%	84.9%	6.8%	3.9%	100%	1.4%	63.2%	33.0%	2.4%	100%
총	24.8%	67.3%	4.7%	3.1%	100%	13.2%	59.2%	25.4%	2.2%	100%
2020										
성별	남					여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자	사별	이혼	-계	미혼	유배우자	사별	이혼	-계
15~19 세	100%	-	-	-	100%	100%	-	-	-	100%
20~24 세	98.8%	1.0%	0.1%	0.1%	100%	93.6%	5.9%	0.4%	0.1%	100%
25~29 세	93.0%	6.7%	0.2%	0.1%	100%	73.7%	25.7%	-	0.7%	100%
30~34 세	66.6%	32.2%	0.2%	1.0%	100%	40.5%	56.1%	1.2%	2.2%	100%
35~39 세	48.8%	47.7%	0.2%	3.4%	100%	20.8%	73.2%	0.5%	5.4%	100%
40 세+	10.8%	77.1%	5.0%	7.1%	100%	3.3%	63.3%	29.0%	4.3%	100%
총	28.3%	62.3%	3.8%	5.6%	100%	15.1%	57.5%	23.5%	3.9%	100%

자료: 통계청. <https://kosis.kr>(검색일: 2022.07.01), 필자 작성

<표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2010년 문경시의 15~19세, 20~24세의 미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다른 혼인 상태와 비교했을 때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였다. 25~29세의 미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83%, 58% 순으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16.0%, 40.9% 순을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30~34세의 남성의 경우에는 미혼이 53.8%로 가장 높았으며, 유배우자 44.7%, 이혼 1.4%의 순인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유배우자는 75%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 22.3%, 이혼 2.1%, 사별 0.6%의 순이었다. 35~39세와 40세+의 남성의 경우에는 유배우자가 각각 67.4%, 84.9%로 크게 나타났으며 미혼이 28.0%, 4.4%, 사별이 0.4%, 6.8%, 이혼이 4.2%, 3.9%의 순이었다. 35~39세와 40세+의 여성 중 유배우자 비율 역시 84.8%, 63.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이 10.3%, 1.4%, 사별이 0.7%, 33.0%, 이혼이 4.2%, 2.4%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2020년의 문경시의 연령별 성별 혼인 상태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020년 15~19세의 남성과 여성은 100%로 미혼 상태였다. 또한 20~24세, 25~29세의 미혼 상태가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남성은 98.8%, 93.0%, 여성은 93.6%, 73.7%의 순이었다. 30~34세 남성은 미혼 66.6%, 유배우자 32.2%, 이혼 1.0%, 사별 0.2%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유배우자 56.1%, 미혼 40.5%, 이혼 2.2%, 사별 1.2%에 이르렀다. 35~39세와 40세+의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여성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남성이 47.7%, 77.1%, 여성이 73.2%, 63.3% 순으로 나타났다.

문경시의 연령별 성별 혼인 상태에 대한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표 4>에서 보듯이 30~34세, 35~39세, 40세+의 미혼 남성과 여성 비율은 2010년에서 2020년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유배우자 상태의 남성과 여성은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미혼 남성의 비율은 2010년에 24.8%를 차지하였는데 2020년에 28.3%에 이르렀으며, 배우자가 있는 남성 비율은 2000년 67.3%에서 2020년 62.3%로 감소하였다. 또한 미혼 여성의 비율은

2000년 13.2%에서 2020년 15.1%로 증가하였는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비율은 2000년 59.2%에서 2020년 57.5%로 지난 10년 동안 1.7%로 감소하였다. 특히, 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30~34세 미혼 남성의 비율은 2010년 53.8%에서 2020년 66.6%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35~39세, 40세+ 미혼 남성의 비율은 2010년 28%, 4.4%에서 2020년 48.8%, 10.8%의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상으로 문경시의 인구, 연령별 성별 혼인 상태 등 전반적인 인구의 현황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문경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혼자, 특히 남성 미혼자의 비율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문경시는 현재 한국 사회, 특히 한국의 농촌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동일한 사회적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 혼인 연령기를 놓친 남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2절 이 사업 관련 내용

제 3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농촌지역의 미혼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1990 년대부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라는 국제결혼 시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 적령기를 놓친 한국 남성이 결혼할 수 있기 위하여 국제결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 년 6 월을 기준으로 국제결혼 지원 사업 또는 조례는 전국 기준 총 46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다⁶. 인터넷에서 ‘국제 결혼 지원 조례’를 키워드로서 검색을 해봤을 때 그에 대한 제시어를 살펴 보면 거제시의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조례, 철원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단양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의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등’과 같은 검색 및 연관 검색어 결과가 나왔으며,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지역 국제결혼 사업 중 하나의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업의 협조문 분석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인구증가를 위한

⁶ 동아일보. 국제결혼, ‘농촌총각’ 혼인 지원?...“지자체 사업 개선해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02/107231540/1>(검색일: 2022.2.28).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한 기자회견 자료, 문경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추진 배경

2021년 초 문경시는 A 행정사무소에서 베트남 유학생 중 졸업 후 결혼하여 정착하고 싶은 여학생들과 문경시 지역의 미혼 남성과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 받았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에 이 행정사무소에서는 문경시의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협조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문경시는 인구증가 시책을 안내하는 협조문(안)을 A행정사무소에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2021년초 A행정사무소(베트남 유학생 관련 행정사)대표가 베트남 유학생 중 졸업 후 한국에서 결혼하여 정착하고 싶은 여성들이 있다며 지역의 미혼 남성과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문경시에 제안하였습니다.”(문경시 공무원)

“2021년 4월 경 A행정사무소에서는 베트남 유학생에게 안내할 수 있는 문경시의 일반적인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협조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문경시는 시에 주소를 두거나 출생을 할 경우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문경시 인구증가 시책을 안내하는
협조문(안)을 A행정사무소에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문경시 공무원)

<그림 9>는 A행정사무소에 전송한 ‘문경시 당초(안)’에 대한 그림이다.
<그림 9>에서 보듯이 ‘문경시 당초(안)’의 주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업 협조 호소의 내용이며, 여기서 문경시는 “최근 지속적인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젊은 세대와 여성의 농촌 이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촌의 인구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농친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안내하오니 희망자 모집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다른 하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과 같은 문경시의 일반적인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림 9>: 문경시 당초(안)

문경시 당초(안)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				
수신처 : 법무부출입국대행기관 사머스인 행정시립동사무소 대표 인길연 귀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최근 지속적인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젊은 세대와 여성의 농촌 이적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촌의 인구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높인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안내하오니 희망자 모집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출산상려금 확대지원(2019~2022 출생아)				
구 분	지원금액	지원기간	축 하 금	
첫째아	360만원	10만원/24개월	출산 100만원/돌축하 20만원	
둘째아	1,400만원	30만원/40개월	출산 100만원/돌축하 100만원	
셋째아	1,600만원	35만원/40개월		
넷째아 이상	3,000만원	45만원/60개월	출산 100만원/돌축하 200만원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				
구 분	지 원 사 업			
임산부	· 임신초기 무료산전검사(1회) · 검사비 지원(초음파, 기형아 검사) · 임신부 차량 표지 발급 · 산모 영양제 지원(임산제,철분제,영양제)			
영유아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출산 축하선물 지원(아기목조, 출산 축하 키트 지급)			
<input type="checkbox"/> 보육료 지원				
구 분	0세	1세	2세	3~5세
영유아 보육료	484천원	426천원	353천원	260천원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 지원				
구 분	가정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
0 ~ 11개월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86개월 미만
12 ~ 23개월	150천원		177천원	
24 ~ 35개월	100천원		156천원	
36 ~ 47개월			129천원	
48 ~ 59개월		100천원		
60 ~ 71개월	100천원			
72 ~ 86개월				

 문경시

자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그 후 A 행정사무소는 문경시로부터 받은 협조문 내용을 수정한 후 문경시의 동의 없이 '수정안'을 SNS 에 게재하였으며, 이 행정사무소는 협조문에서 '맞선 진행 / 결혼을 위한 만남 등 지원'(<그림 10> 참고)을

추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사업에 관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른 실적이 없었다.

“A 행정사무소에서는 문경시로부터 전송받은 내용 중 임의로 ‘맞선 진행/결혼을 위한 만남 진행’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후 문경시와 협의 및 동의 없이 A 행정사무소 직원(베트남출신 귀화 한국인)이 SNS 에 게재하였습니다.”
(문경시 공무원)

<그림 10>: 협조문 (수정(안))

수정(안) - 행정사사무소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

수신처 : 법무부 출입국면허행기관 서비스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귀하

귀사의 무궁한 번전을 기원드립니다.
최근 지속적인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젊은 세대와 여성의 농촌 이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촌의 인구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인연을 농민 농촌 송귀과 베트남 유학생의 사연스런 만남을 통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안내하오니 회람자 모집에 적극 활용에 주시기 바랍니다.

□ 맞선 진행 / 결혼을 위한 만남 등 지원

- ☞ 맞선 후 만남을 위한 주거지원 : 문경시 주택 무주택3 ~ 6개월 / 1인 1실
- ☞ 예비신랑 집 방문 슬퍼근 농사 / 생활 경비 등 지급 : 매월 200여만원
- ☞ 결혼 후 계속 공부 희망 시 : 유학경비 전액지원(문경시 장학금 50%지원)

□ 출산장려금 확대지원(2019~2022 출생아)

구 분	지원금액	지원기간	축 하 금
첫째아	360만원	10만원/24개월	출산 100만원/통축하 20만원
둘째아	1,400만원	30만원/40개월	출산 100만원/통축하 100만원
셋째아	1,600만원	35만원/40개월	
넷째아 이상	3,000만원	45만원/60개월	출산 100만원/통축하 200만원

□ 입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

구 분	지 원 사 업
입산부	· 임신초기 무료산전검사(1회) · 검사비 지원(초음파, 기형아 검사) · 입산부 차량 표지 발급 · 산모 영양제 지원(임신제,철분제,영양제)
영유아	· 출산 축하용품 대어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출산 축하선물 지원(마키유즈, 출산 축하 키트 지급)

□ 보육료 지원

구 분	0세	1세	2세	3~5세
영유아 보육료	484천원	426천원	353천원	260천원



자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협조문을 살펴보면 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문경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경시는 이 사업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이후 지방자치단체로서 초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에 반해, 이 사업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A 행정사무소에 차별적 요소가 담겨있는 협조문(안)을 발송하였다고 본다. 그리하여 문경시에서 A 행정사무소에 협조문을 발송함으로써 문경시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업의 목적

먼저, 문경시에서 A 행정사무소에 보낸 협조문(안)의 제목을 살펴보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이라고 본다. 게다가 이 협조문(안)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농촌의 인구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문경시 자체의 인구증가는 물론, 농촌에서 혼인 연령을 놓친 미혼남성 결혼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 역시 본 사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래 문경시는 기존에 있었던 국제결혼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례를 방지하고 국제결혼 희망자들을 위해 국제결혼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의미로 시작하였음을 역시 알 수 있었다.

“문경시는 국제결혼의 문제점이었던 속성결혼 등 부정적인 사례를 방지하고 만남의 장만 마련한다는 순수한 의미로 본 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시 공무원)

따라서,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은 이주여성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제결혼 관련 문제를 방지한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추진되어질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업의 협조문에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한 “농촌의 인구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되어있기에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구감소와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3. 사업의 선정 대상자

문경시 공무원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A행정사무소에서 문경시에 제안을 한 것이며, 더불어 문경시는 베트남 여성을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사업에서 언급한 농촌 총각의 결혼 상대자 선정 대상은 베트남 유학생 전체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 한국에서 결혼하여

정착하고 싶은 베트남 유학생이라고 설명하였다.

“문경시에 사업을 제안한 A행정사무소에서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업무 등의 처리를 하고 있어 문경시에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제안을 한 것이지만 문경시는 베트남 여성을 사업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문경시 공무원)

“당초 A행정사무소에서 본 사업은 베트남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것을 전제하였습니다.”(문경시 공무원)

그러나 문경시는 베트남 여자 유학생을 이 사업 대상으로 직접 선정하지 않았고, A 행정사무소에서 이러한 제안을 받았더라도, 상업적 국제결혼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책임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러한 A 행정사무소의 베트남 유학생이라는 특정한 집단을 지목한 국제결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전에 권고를 해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옳지만,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협조문(안)을 A 행정사무소에 보냈다.

앞서 국제결혼 선정 대상이 재학 중인 학생이든 졸업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든 상관없이 베트남 유학생이라는 특정한 단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베트남 여성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여성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온 베트남 유학생이라는 단어를 선정한 점에서 국적에 따른 인종차별의 여지에 대해서는 미처 정책 시행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시책은 먼저 베트남 유학생의 교육적 수준과 베트남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해도와 인종적, 성차별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5 장 이 사업의 문제점 분석

제4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업을 위한 대상은 한국의 농촌에 거주하는 혼인 연령을 놓친 미혼남성이며, 이들의 결혼 상대자 선정 대상에는 베트남 여자 유학생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의 문제의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 장에서의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을 사례를 한정으로 펴본다. 2000년대부터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은 급증하고 이 사회적 경향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에 반해,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 관한 연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본 장에서 이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서 관찰되어진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장에서 본 논문의 중심 문제의 범위가 단순히 문경시와 같은 하나의 지역적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임을 밝히고자 한다. 본 사업의 문제점의 본질은 크게 ‘차별(성차별과 인종차별)과 ‘출산’(여성출산 및 재생산에 대한 도구화), 매매혼적인 성격 세 가지로 나뉜다.

제1절 인종차별과 성차별 문제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매우 친애한 관계가 있으면서 둘이 함께 평생 하기로 하는 것이며, 다른 국적의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국제결혼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에서 거주하는 남성의 결혼에서 그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언급하였다. 심증욱(1998)은 “전국 어느 농촌을 가보아도 처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고 설혹 있더라도 “결코 농촌 총각에게는 시집 가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소신이다”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국 여성의 농촌 남성 결혼 비선호 심화에 대해 농촌에서 거주하는 한국 남성의 국제 결혼이 증가하였는데, 김현재(2007)에 따르면 농어촌, 경제가 열악한 도시 출신 저소득 한국인 남성이 경제력이 약한 베트남 또는 아시아권 국가 출신 여성과 혼인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증가와 출산장려 및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국인 여성이 아닌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의 농촌 총각과 혼인하는 국제결혼을 촉진하는 사업 또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라는 사업은 대표적인 사업 사례이다. 하지만 문경시가 추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인 베트남 여자 유학생을 지목한다는 것은 분명한 성차별(sexism)이자 인종차별(racism)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시책의 문제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과 베트남 여성에 대해

편향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그 사회학적인 근거에 대해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자본주의적 세계화, 특히 미국적으로 반영되며 일반적으로 외국을 높일 때 주로 미국을 말하며 외국 사람처럼 잘 생겼다는 말로 칭찬할 때 동남아시아계 또는 아프리카계처럼 잘 생겼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백인과 비슷한 것이다(박경태, 1999: 204). 또한, 단일민족문화, 출신국의 경제력, 피부색, 영어 구사 능력이라는 4 가지 요인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척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망의 태도, 후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별과 멸시의 태도를 보인다(유승무·이태정, 2006). 우선 문경시의 사업을 다시 살펴보면 문경시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할 때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에서 일본 유학생이나 미국 유학생, 즉 선진국 유학생을 한국 농촌 총각의 결혼 상대자로는 물론 국제결혼 지원 사업의 선정 대상으로도 선정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거시적인 시점으로 보면,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일반적으로 그 결혼대상으로 때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 국적의 여성 또는 백인 여성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 국적의 여성들 또는 인종적으로 한국인보다 피부 색깔이 조금 더 검은 특성을 가진 여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자주 국제결혼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는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사회적 위치상 열등적 위치를 가진 남성의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보고 있으며, 이 국제결혼의 선정 대상 역시 한국사회의 기준에서 단순히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배상식(2019)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계에 대해서는 국가 간 소득 격차로 인해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농촌 거주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이들 가구는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송형주, 2014: 205)라고 편향적인 국제결혼 사업 추진에 사회학적인 위험성에 대한 연구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경시를 비롯해 한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같은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문경시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혼인연령을 놓쳐 단순히 결혼을 하려는 농촌총각들의 요구만을 고려했을 뿐, 한국 남성에게 대한 베트남 여성 개개인의 결혼대상 선호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열등적인 형태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과 베트남 여성을 자국 여성과 비교하여 더 농촌가부장적인 방식으로 대해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한국 사회에서 열악한 경제적으로 농촌 총각들의 위상이 높지 않으며 농촌 총각들이 국내 결혼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임형백, 2007).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시책은 베트남 여성에 대한 차별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한국

농촌총각에 대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실추시킬 수 있는 부작용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본다(김한곤·박세정, 2013: 736). 달리 말해, 이러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인해 베트남 여성은 물론, 한국의 농촌 총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또 이러한 시책의 실행은 시대의 역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적 출신에 의해 차별을 받고 결혼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은 인권이 중요시되는 21세기 현대사회의 보편적 윤리에서 분명히 어긋나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다음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1948년 유엔(UN)의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선포하였다. 또, 16조에서는 “성인이 된 남녀는 인종이나 국적,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또한,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고 하며,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결혼에 있어서도 그 인권적 동등함을 강조했다⁷. 물론 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과 관련된 문경시나 기관들은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거나 인구감소와 농촌에서 미혼남성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에만 집중하고 이 사업 방향의 문제점 또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인권이 중요시되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차별을 없애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 이러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와 같은 사업은 시대착오적이며 한국이라는 국가의 수준에 맞지 않은 시책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⁷ 세계인권선언. 제 16 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절 여성출산 및 재생산에 대한 도구화 문제

바람직한 국제 결혼의 기준을 반영했을때, 본래 이 사업의 대상은 모든 한국의 남성이며 이들의 결혼 상대자는 모든 베트남 여성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을 하는 대상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혼인 연령을 놓친 남성으로만 한정되었으며, 그 농촌총각의 결혼 상대자는 한국 여성이나 선진국의 여성이 아닌 베트남 여자 유학생으로 매우 명확하게 언급되었다. 이와 같이 혼인 연령을 놓친 남성과 한국에 공부하러 온 베트남 여학생들의 맞선을 진행하는 것은 베트남 여자 유학생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을 인구증가의 ‘출산도구’ 또는 ‘재생산(reproduction)’ 도구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베트남에서 출신의 유학생의 사회적인 역할은 자국의 부족한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선진국의 첨단과학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또한, 설상 교류적인 면에서 이해 관계를 따지더라도, 유학생의 신분은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잠재적인 인적자원이며 경제, 외교, 교육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교류하고 협력하는 큰 도움이 되는 인적 자원으로서 앞으로도 양국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교양이 있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지만,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통하여 농촌에 있는 결혼 적령기를 놓친 남성들의 결혼 상대자의 역할을 맡는 것은 그 신분의

목적과 이해 관계에서 벗어 났다고 본다. 위와 같이 바람직한 교류의 이해 관계에서 벗어난 결혼 시책에 대해 이지훈(2005)이 농촌총각을 살리고자 아시아권의 여성들이 희생되어진다면,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결국 국제결혼은 농촌의 결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정현숙·양순미, 2009: 28).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문경시의 사업에서 베트남 여자 유학생은 농촌 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물’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와 같은 사업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재생산 도구로 만들었다. 저출산 및 육아양육의 현황이 부족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돌봄 제공자(care workers),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인 여성 대신에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한국의 재생산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송형주(2014)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재생산 영역에 대응하는 것은 한국 ‘가족’ 내에서의 재생산-생물학적 인구 재생산뿐 아니라 시부모 봉양, 육아, 청소, 가사 등 노동을 담당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다”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주여성의 상당수가 노인·병자 돌봄, 아이 돌보기 등과 같은 돌봄 노동(care work)이나 청소, 빨래, 밥 짓기와 같은 가사노동(domestic labour)을 수행하고 있다(송형주, 2014). 즉, 한국 사회에게 있어 인종, 국가, 신분을 막론하고, 개발도상국의 출신 국적 혹은 신체적 차이가 나는 국적의 여성들은 사회 인권적 권리를 가진 동등함을 가진 위치의 신분이

아닌 단순히 돌봄 노동, 가사노동 등을 하는 재생산 도구로서만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 결혼은 단순 재정적 혜택을 부과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결혼이지만, 그 이면에는 재생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 달성의 연장선에 있다고 추측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문경시의 사업 역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특히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재생산 도구로 여긴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매매혼적인 성격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공인된 매매혼적 성격도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김현미(2016)는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의 명목상의 주체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는 상업적인 중개업자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국제결혼의 비용으로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 농촌총각에게 지원하고 있고 이들이 국제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매매혼적 성격을 지닌 시책에 대해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문경시가 추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하여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 행정사에 요청한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고 하며 “상업적 국제결혼의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매매혼적 특징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정보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⁸.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알선은 공인된 매매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지훈, 2005: 167). 이 이지훈의 연구 사례에 따라서 다른 국제결혼 지원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문경시가 추진한

⁸ 이지훈. 2005.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우려」. 『열린전북』 68권. p. 168.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역시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매매혼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경시가 행정사 합동사무소에 보낸 협조문 내용중에는 “농촌의 인구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출산, 임신부, 영유아 보육 등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이를 설명하자면, 농촌총각이 베트남 여자 유학생과 결혼하고 출산하기만 하면 지방정부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증가를 위한 국제결혼지원 사업 구상의 발단이 저출산, 특히 한국 농촌 사회에서의 저출산이라는 것과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그 방식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적 지원을 통한 외국인 여성과의 중매결혼 진행 및 지원이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시책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에서 언어적, 문화적 장벽 또는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사건, 가정폭력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2008년에 베트남 어린 신부 살인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건은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했다”는 사례이다. 또한, 2011년에 베트남에서 온 황씨가 한국인 남편에 의해 사망하였다. 황씨는 당시 출산한 지 19일이었으며, 남편은 칼로 52차례 찔렸다¹⁰. 이와 같은 국제결혼에 대한 극단적인 사건과 아쉬운 일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적 지원을 통한 외국인 여성과의 중매결혼 진행 및 지원이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시책을 추진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시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마련해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 시책은 인구감소 문제와 농촌 총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⁹ 국가법령정보센터. “살인(베트남신부 살인사건”. <https://www.law.go.kr>(검색일: 2022.06.15)

¹⁰ 여성신문. “우연히 살아남았다” 외치던 베트남 이주여성도 살해당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420>(검색일: 2022.06.19)

제4절 소결

문경시와 관련 조직은 처음부터 인구증가시책 홍보와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 사업의 홍보물에서 ‘지속적인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처하기 위하여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성격 자체는 인종차별, 성차별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국제 결혼의 선정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국적의 여성들, 특히 베트남이라는 특정 국가가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자 유학생’이라고 특정 대상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성적 차별이 그 기준에 반영되었다고 본다. 또 유엔 인권 선언 안내문에 언급된 정책 특성 비교를 통해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서 인구감소 문제와 농촌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트남 여자 유학생을 ‘출산도구’ 또한 ‘희생물’, 돌봄 제공자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유학생’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단순히 ‘베트남’이라는 개발도상국 국적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같은 국제결혼 사업 진행 과정은 결혼중개업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매매혼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보여짐으로서 한국 남성의 입장 또는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 베트남에서 오는 여성들을 재생산 도구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문경시 국제결혼 정책의 사례에 그 문제제기의 대상이 집중되었다는 것이 한계이지만, 그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베트남의 국제결혼과 베트남 사람, 특히 베트남 여성에 대해 인종차별적이고 재생산의 도구라는 부정적인식과 왜곡된 시선이 존재함을 밝힐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베트남 여성에게만 한정되지 않은 한국 이주 외국인 및 외국인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본다.

제 6 장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부터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건수, 특히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인 여성의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의 교류·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왔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과 베트남 국제결혼과 연관한 문제도 교류 과정에서 꾸준히 발생하였다. 본 논문은 경상북도 문경시가 추진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존재하는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또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밝히기 위하여 관련 기존 연구와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라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 등을 분석하였고, 문경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업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논문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문경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 행정사무소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이후 지방자치단체로서 문경시는 처음부터 이 사업의 문제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파악하지 않은 채 A 행정사무소에 외국인

차별이 담겨있는 인구 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당초(안))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안정적으로 돕고, 국제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방지한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베트남 여성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을 비하하려는 차별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으로 사업 목적을 전달하였지만, 이 사업의 협조문에서 특정한 집단인 베트남 여자 유학생을 언급한 것에는 무의식적인 차별이 정책 과정에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결혼에 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연구의 핵심으로 삼고, 그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에 대한 왜곡된 시선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 세부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임을 설명하였다. 다음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여자 유학생을 한국 농촌의 혼인 적령기를 놓친 남성의 결혼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또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라는 국제결혼 사업의 문제점의 본질이 다음 세 가지로 나뉘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문제이다. 문경시가 추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베트남 여자 유학생이라는

특정한 집단을 지목한다는 것은 분명한 성차별(sexism)이자 인종차별(racism)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시책의 문제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과 베트남 여성에 대해 편향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여성출산 및 재생산에 대한 도구화’라는 문제이다. 저출산 및 육아양육의 현황이 부족한 현재 문경시를 비롯해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돌봄 제공자(care workers),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혼인 연령을 놓친 남성과 한국에 공부하러 온 베트남 여학생들의 혼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베트남 여자 유학생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을 인구증가의 ‘출산도구’ 또는 ‘재생산(reproduction)’ 도구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셋째, 매매혼적인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의 사이에 성 불평등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경시가 진행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한국사회의 젠더 갈등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점이 있다. 첫째, 문경시에서 진행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한국과 베트남 간 국제결혼에 대한 왜곡된 시선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과 연관한 연구에 있어 문제 발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과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해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가 사실상 다문화사회로 돌입함과 동시에 선진국으로서 그 국가의 수준에 알맞은 국제결혼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한국·베트남 국제결혼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또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과 편견 의식,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 본다.

참고 문헌

- 학술지

- 구효진·이유정 외. 2010.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측정도구 개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권 4호. 739-758.
- 김덕희·김신미 외. 2010.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2. 321-29.
- 김미진. 2017.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이미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0 권. pp. 101-128.
- 김민정 외.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 권 1 호. pp. 159 - 93.
- 김민정.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3. pp. 1-28.
- 김천기. 2016. 「마르크스적 재생산이론의 맥락에서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 다시 읽기: 재생산이론 이후의 민주주의 교육 탐색」. 『교육종합연구』 14 권 4 호. pp. 61-88.

- 김한곤·박세정. 2013. 「경북지역 농촌 총각의 미혼실태와 해결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권 12 호. pp. 724 - 737.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 『경제와사회』 여름호 통권 제 70 호.
- 김현숙·김옥녀. 2017. 「한국인의 배타적 태도에 대한 이주민 반응에 관한 연구 -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0.2. 145-91.
- 김현재. 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개인저작물 - 사회』 52. 219-54.
- 김현재. 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52). pp. 219-254.
- 김희정·조영아. 2017.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24 호. pp. 99 - 140.
- 남순현. 2012.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949-75.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pp. 67-93.

- 박경태. 1999.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외국인 노동자, 화교, 혼혈인」. 『역사비평』. pp. 189 - 208.
-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427-442.
- 박재규. 2011.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해체 원인 및 특성 분석: 경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권 3호. pp. 104-39.
- 배상식. 2019. 「한국사회에서의 인종편견 사례와 그 특성」. 『대동철학』 89 권. pp. 168 - 192.
- 사미자. 1998. 「학습이론(4): 편견. 교육교회 통권」 260 권. pp. 51 - 56.
- 송 유 진. 2008. 「베트남 국제결혼 여성의 혼인이주 원인 및 의사결정과정」.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581-595.
- 송유진. 2008. 「베트남 국제결혼 여성의 혼인이주 원인 및 의사결정과정」.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 권 4 호. pp. 581-595.
- 송형주. 2014. 「이주여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유형화와 정부대응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52 권 제 4 호. pp. 191-231.

- 신옥주. 2012.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개선방안 연구」. 『헌법학연구』 18 권 4 호. pp. 1 - 49.
- 실라 맥그리거. 2019. 「사회 재생산 이론: (어느) 마르크스로 돌아가기?(김동욱: 역)」. 『마르크스 21』 30 호. pp. 43-102.
- 심증욱. 1998. 「한국농촌 총각의 결혼문제」. 『明大』 17호. pp. 127-141.
- 유승무.이태정 .2006.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 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 9(2). 275-311.
- 육수현.허정원. 2020. 「본국가족초청제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10 권 3 호. pp. 81 - 129.
- 윤희숙 편.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KDI 연구보고서』 2010 - 01호.
- 은기수. 2018.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단절」. 『한국인구학』 41 권 2 호. pp. 117-150.
- 이윤영. 20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의의와 전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 권 30 호.
- 이정복. 2009.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적 언어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48 호. pp. 125 - 58.

- 이종일. 2011. 「한국 인증편견 형성과정과 요인」. 『사회과교육연구』 18 권 2 호. pp. 73 - 89.
- 이종일. 2012.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인증편견 특성」. 『사회과교육연구』 19 권 4 호. pp. 95 - 120.
- 이지훈. 2005.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우려」. 『열린전북』 68 권. pp. 166 - 169.
- 임도경. 2010. 「외국인 이주민이 본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연구」. 『주관성 연구 통권』 20 권. pp. 101- 120.
- 임형백. 2007.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의 특징」. 『농촌지도와 개발』 14 권 22 호. pp. 471 - 491.
- 정강산. 2019. 「생산 혹은 재생산을 위한 인지적 지도 그리기 : 가사노동논쟁과 사회재생산 이론을 중심으로」. 『뉴 래디컬 리뷰』 80 권. pp. 195-251.
- 정진희. 2016. 「사회재생산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노동자 연대』 169 호.
- 정진희. 2017. 「사회적 재생산 이론의 약점」. 『마르크스』 21 권 18 호. pp. 43-62.

- 정현숙·양군미. 2009. 「농촌의 혼인 관련 인구학적 현황과 농촌 미혼남성의 혼인과 국제결혼 관련 태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 권 1 호. pp. 17 - 29.
- 조현미 ·Hoang Thi Viet Ha. 2017.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혼인경로에 따른 혼인동기와 가족과의 관계분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0 권 1 호. pp. 143-66.
- 최윤경 외. 2020. 「코로나 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0 - 01 호.
- 최윤경. 2020. 「코로나 19 와 아동 돌봄의 쟁점」. 『육아정책연구소』 이슈브리프 여름 호. pp.6 - 69.
- 추병완. 2012. 「편견 이론에 근거한 반편견 교수 전략」. 『교육과정평가연구』 15권 1호. pp 127 - 156.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권1호. 195 - 243.
- 허영식. 2015. 「다문화사회에서 편견·차별의 문제와 해결방안」. 『다문화와 인간』 4권2호. pp. 3 - 32.
- Le Nguyen Doan Khoi. 2012. 「Phân tích hiệu quả kinh tế - xã hội trong hôn nhân quốc tế: Nghiên cứu phụ nữ lấy chồng Đài Loan và Hàn Quốc

ở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Journal of science, Can Tho University』 24b. pp.190-198.

Le Thi Quy. 2010. 「Di cư hôn nhân Việt Nam – Hàn Quốc: Những vấn đề đặt ra」. 『Nghiên cứu Gia đình và Giới』 5.

Nguyen Ngoc Tuyen. 2010. 「A review of commercialized transnational marriage between Vietnam and Korea」.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The University of Danang』 . 5(40).

Tran Thi Nhung. 2010. 「Hôn nhân Việt – Hàn: Thực trạng và giải pháp」. 『Nghiên cứu Đông Bắc Á』 108(2).

- 책

고든 올포트. 2020. 『편견: 사회심리학으로 본 편견의 뿌리 (석기용, 역)』. 서울: 교양인. (원본 출판 1954년).

고모리 요이치. 2015. 『인종차별주의(배영미 옮김)』. 푸른역사.

이준일. 2007.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이철수. 2013. 『사회복지학 사전. 고양: 헤민북스』. p. 804.

이한우·Bui The Cuong. 2015. 『한국-베트남 관계 20년, 1992~2012 : 협력관계의 전개와 발전 방향』. 폴리테이아.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 (검색일: 2022.2.28).

통계청. 국제결혼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검색일: 2022.2.15).

통계청. 한국재외동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15(검색일 2022.2.1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한 문경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http://www.wmigrant.org/wp/wpcontent/uploads> (검색일: 2021.6.16).

- 기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세종학당재단 온라인교육지원센터. 신남북방 언어권별 세종학당

통번역과정 교육과정교재 개발 사업 제안요청서(요약). p. 1.

통계청. 2020년 혼인·통계.

통계청. 2021년 12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p. 17.

부록

인터뷰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이엔레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문경시가 추진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실질적 데이터를 찾아봤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화로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뷰 질문에 답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응답해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응답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 또한 본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I.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목적

1. 문경시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가?

II.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선정 대상자

2.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대상에 베트남 여성을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가?

3. 베트남 유학생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III. 이 사업의 결과

4. 이 사업의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는가? 시기별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문경시 주민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5.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베트남 여성들이 선정되었고, 그들은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가?

6. 이 사업은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만일 사실이라면 사업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

Abstract

Korean society's distorted view of Korean-Vietnamese International Marriage

(Focused on the population growth project 'Getting married to rural Korean bachelors' of Mungyeong city)

KIEU THI YEN LE

Korean Studies Maj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on December 22, 1992, the two countries

have maintained full-scale exchanges and cooperation for the past 30 years. Accordingly, since the 2000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Korea and Vietnam, especially between Korean men and Vietnamese women,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particular, this number is high even when compared to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other countries. The number of Chinese women married to Korean men from 2000 to 2005 was overwhelmingly higher than the other countries, after it has been decreasing. In the early 2000s, the number of Vietnamese women marriage was only 77 in 2000, 134 in 2001, and 474 in 2002. But this number increased quickly to 1,402 in 2003, 2,461 in 2004, 5,822 in 2005 and 10,128 in 2006. In 2010, the number of Vietnamese women was similar to Chinese (9,623). After that, it was showing a sensitization trend (2,000-3,000) from 2007 to 2020. Finally, it has overcome China in 2011 and 2015-2020. As the number of Korean-Vietnamese international marriages increased rapidly, it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getting closer. At the same time, many problems surrounding Korean-Vietnamese international marriages occurred.

Representatively, Mungyeong city, Gyeongsangbuk conducted a project that is called 'Getting married to rural Korean bachelors' to increase the population in 2021. In the process, the selection of Vietnamese female students as the bride-candidates of the rural bachelor became a problem. This is an example for the Korean society's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educational level of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my opinion, the arranged marriage between a man, who has passed the age of marriage in rural Korea and a Vietnamese student is contrary to efforts to eliminate the racism and sexism. Through this project,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the racist and sexist characteristics in Korean and Korean society's perceptions of a specific group of Vietnamese women and Korean-Vietnamese international marriage. It is evaluated that this is a standard against the moder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when the human rights are important. To find out the reason that Mungyeong city has been selected Vietnamese female international students to carry out this project, firstly I analyzed the problem focused on the case of population growth project 'Getting married to rural Korean bachelors' of Mungyeong-si. Therefore, this thesis is analyzed the <Korean society's distorted view of Korean-Vietnamese International Marriage>, focusing on the case of the population growth project 'Getting married to rural Korean bachelors' of Mungyeong-si and previous research data related to this issue.

Chapters 1 and 2 of this thesis is to explain problem posing, precedent research, research methods, thesis composition, and theoretical background. Next, chapter 3 is to examine Korea's population, the status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migrant women. Through it, we were aware of the basic background knowledge needing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in Korea. In Chapter 4, the population of Mungyeong City and the case of project 'Getting married to rural Korean bachelors' of Mungyeong city is analyzed in earnest. Lastly, in Chapter 5, I would like to explain that the central problem scope of this thesis is not limited to single regional problem, but an overall problem of Korean society. In other words, it was judged that the problem of this project was a considerable problem to not only Mungyeong city, but also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re are three major problems in this thesis. The first problem is about

discrimination (sexism and racism). Mungyeong city had carried out a multicultural marriage project to solve problem of the decline in population and a man, who has passed the age of marriage in rural Korea. In this process, the marriage recipient was explicitly specified to Vietnamese female student. By this way, the project, which explicitly pointed out a specific group and did not consider the environmental difference of the recipient, could be said to be a sexist and racist project. Secondly, it is difficult for Korean men to marry the women in their country. In this situation, the low birth rate problem is the basis of multicultural marriage policies.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women is replaced by foreign women (including not only Vietnamese but also other country) as a 'childbirth' tool or a 'reproduction' tool. The third problem is about trading marriage of the population 'Getting married to rural Korean bachelors'.

This thesis explained <Korean society's distorted view of Korean-Vietnamese International Marriage>, which focuses on the population growth project 'Getting married to rural Korean bachelors' of Mungyeong-si. Therefore, I believe that the human rights and social rights of Vietnamese women and foreign women are violated due to th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is a lack of background knowledge about Vietnam and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marriage. Through this thesis which is to explain Korean society's distorted view of Korean-Vietnamese International Marriage, I want to help solve the problem of Koreans' distorted views of Korean-Vietnamese international marriage and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or foreign women, and help Korean society to carry out international marriage projects and polici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times and standards.

Key words: Korea-Vietnam international marriage, racism and sexism, childbirth tool, reproduction

Student Number: 2019-21383